

합격기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기도하며 기대하며...



조 유 리

- 1985년 2월 생
- 춘천여자고등학교졸업
- 한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1기

I. 법을 선택하다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 상하수도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재판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 나’는 정확한 사정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방에 무릎을 꿇은 후 큰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정직한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그 후 한동대에 입학하여 자연스럽게 법학부를 선택한 후 2학년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존경하는 교수님 밑에서,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이 길이 내게 과연 맞는 길인지 회의가 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법학부 내에서 합격자가 없었고 대기업 내에서 기계제어학부나 전산전자학부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주위에서 기계과로 진학하라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릴 적 마음에 품었던 법조인의 길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법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입문에 들어서기 위한 2년 반 동안 신림동에서의 수험생활은 시험 자체 뿐 아니라 제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생활이 절대 정

체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생동력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수험생활이 길지는 않았고 오히려 저의 부족함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느껴졌지만 이 글을 쓰면서 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러한 시행착오와 또 어떤 면에서 좋았던 점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공감대와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부족한 편대를 잡았습니다.

II. 2006년 신입동에 가다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고시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신림동'으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을 마친 후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휴학을 하고 같은 학부였던 친구인 은미와 함께 2006년 2월, 서울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와 자란 저이지만 신림동은 사실 '꿈의 서울'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동네였습니다. 좁은 길에 차와 사람이 혼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휴리닝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처음 보는 고시식당과 뽀뽀하게 들어선 카페와 상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곳이 앞으로 내가 지낼 곳이구나! 아직은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처음으로 내 손으로 구한 방에서 그리고 낯선 땅에 용감하게 왔다는 뿌듯함을 안고 그렇게 신림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II. 제1차 시험에 도전하다

2월에 가서 처음으로 한 건 토익공부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험삼아 1차 시험을 한 번 쳐보는 것이었지만 토익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해 그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어있어서인지 토익시험도 '700 점은 넘겠지...'하다가 결국 마지막 토익 시험의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적인 기회였지만 이 작은 해프닝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집중하여 영어공부를 하고 다음 달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이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져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먼저 신림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 선배인 언니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책들을 사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선구자의 위치에 서는 게 힘든 법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학교선배들의 도움으로 막연함을 덜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있는 큰 학교는 그러한 도움과 정보가 당연하겠지만 저는 그 도움이 절실하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마음 담긴 그 도움과 관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독서실에 앉아 1년간의 일정과 월별, 일별로 계획을 세워가며 공부를 하

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물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공부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주위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차 시험의 기간은 지금 되돌아봐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을 쏟은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벼락치기가 익숙했었던 나인데 하루하루가 기쁘고 사소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을 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시험결과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차시험은 2차시험과는 달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출문제를 풀어 문제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출을 풀어보아야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각 학설의 다수설과 소수설, 판례를 각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시험마관에 빨리 책을 돌릴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부분과 잘 익혀지지 않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여 반복해서 보고 이해와 암기가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떼어놓는 식으로 책을 반복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포스트잇에 바로 적어 책상에 붙여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책을 찾

아 해결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은 주위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틀리는 것은 항상 반복해서 틀리는 경향이 있어 그런 부분과 대리 등 복잡해 보이는 법리들도 따로 노트정리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잘 모를 땐 손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IV. 생생한 립동 life

사실 신림동(저와 제 친구는 신림동을 ‘립동’이라 부른답니다)에서의 생활은 체계 크게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물론 ‘시험준비’였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법공부를 시작한 계기도 신앙적인 이유가 컸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아침엔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새벽예배를 못 드린 날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교회에 들러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게으르고 해야 할 일 앞에서 유혹에 약한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때 생활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낮은 수준의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2년동안 원룸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예민해지기도 해 부딪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롭지 않고 든든한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스케줄대로 공부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에 만화를 본다거나 방에서 영화를 보는 등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일요일)을 보내고 나면 어디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월요일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의욕과 힘이 났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느끼는 의욕과 열망을 일주일 단위로 조절한다면 -가능하다면 하루단위로 좋겠지만- 월요일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운동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체력이 약하면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했고 시험이 가까워 여유가 없을 땐 가까운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상태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공부의 부담 때문에 몸이 아파도 공부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버리는 일입니다. 감기나 몸살이 오려고 할 때 오히려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쉬는 것이 더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세계 정신적으로 크게 힘이 되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포항에서 석사 학위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바빴고 덕분에 45주에 한번씩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는 4시간이 넘

는 거리였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에 와주었고 떨어져 있는 기간동안에도 서로 연락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실 정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서인지 생각도 많고 예민했던 터라 작은일에도 서운해 하거나 짜증을 부릴 때가 많았는데, 남자친구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고 오히려 늘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서의 시간은 오히려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지금 6년째 연애중입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염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장염치료를 받다가 결국 만성장염으로까지 이어졌고, 겨울에는 고3때도 걸리지 않았던 독감 때문에 39도의 고열에 방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고생한 적도 있고 불면증 때문에 난생 처음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은 아마 많은 수험생들도 경험했을거라 생각합니다. 1차 시험 전날에도 수면제를 먹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가는 본인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 과정을 더 힘있게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좌절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 머릿도 내 경험도 아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후 강변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교시 헌법은 좀 쉽고 2, 3 교시인 형법과 민법으로 갈수록 더 어렵다고 느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별표가 많았던 민법문항이 대부분 맞게 되자 생각보다 고득점을 하게 되었고 헌법에서 낮은 점수를 맞은 것이 보충되었습니다. 늘 어렵다고 생각되던 헌법은 역시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것 같고, 민법은 판례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알게 공부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형법의 체계를 바탕으로 학설의 근거와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8지선다형의 문제여서 긴장했지만 어떤 문제들은 그 덕에 객관식을 고르는 게 더 수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아진 지면 탓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도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앞부분의 지문에 정답이 있으면 밑에 있는 보기는 읽지 않고 일단 답을 적은 후 따로 표시해 두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읽어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덕분에 다행히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데 갑자기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시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 눈 앞에 친구 문경이가 멀고도 먼 포항에서 저를 마중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장 앞에 많

은 부모님들과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수험생을 기다리며 서있었는데 전혀 기대 없이 나오고 있는 제 눈앞에 이 친구가 제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친구는 제가 3차 면접을 볼 때에도 일산에 마중을 나와 주었고 지금은 구리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도 호수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그런 소중한 친구입니다.

V. 제2차 관문에 들어서다

제1차 시험을 끝내고 다시 신입동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원길오빠와 진영언니에게 공부방법이나 강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마음가짐과는 달리 마음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에너지를 태운 탓인지 처음 시작하는 2차 시험인데도 공부하기가 싫었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과 상법만 학원수업을 듣고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은 테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원수업이 잘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 강의일정보다 좀 더 빠르게 일정을 진행하려고 테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 3법은 불안했던 헌법만 테일로 강의를 듣고 민법과 형법은 케이스집 위주로 책을 봤습니다. 답안지 쓰는 요령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오전 9시에 독서실에 오면 12시까지 줄러 독서실에서 엎드려 잤습니다. (세상에, 엎드려서 3시간씩 잠을 잘 수도 있더군요.) 무식하면 용감한건지 초시라도 잘하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한

편으론 마음만 더 다잡는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잡기란 쉽진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6월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는 4일동안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시험장을 가는데 토할 것 같고 몸에 기운이 없어 이 시험, 정말 더는 못하겠더라는 생각들이 정도였습니다(역시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일 동안의 시간을 마치고 3일간 쉬었더니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

초시를 끝낸 후 학교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2차 시험 준비생이 모두 6명이었는데 그 중 결혼하신 선배님을 제외하고 5명이 스터디를 조직하여 일주일에 2~3번씩 스터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잡기도 어렵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제게 스터디는 그야말로 힘과 위로의 시간일 뿐 아니라 유익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사례폴이를 중심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스터디의 이름도 '에스 헤레스'라고 짓고 재시를 칠 때까지 계속 스터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발표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마음이 떨어질 줄 알면서도 기대를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소 안하던 화장도 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써서 입은 후 집 문을 나섰습니다. 나름 결전의 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지요. 공부를

하겠다고 밖을 나섰지만 왜 이리 시간이 안가는지. 하지만 합격자명단에는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은 없었고 그 때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지만 막상 밀려오는 실망감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다음 날 점수를 보니 과락은 없이 커트라인 점수에 못미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기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집에 내려가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울을 향했습니다. 가을 시즌이라 2순환이 시작되었고 학원강의를 들으며 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정리를 하고 3순환부터는 문제풀기 연습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모르는 부분은 서로 질문과 토의를 하며 해결해 나갔고 자신 없었던 민사소송법은 논점 위주로 노트 1권에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중요한데 자주 틀리는 논점 등은 따로 노트에 적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몰라 공부할수록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시험문제는 출제 당시 이슈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것 보단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례의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엔 논점별로 배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평소 문제를 풀 때 나오는 논점을

모두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논점을 깊게 쓰는 것보다 문제되는 논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라도 적는 것이 배점에 유리하다는 말이 그 때문입니다.

물론 일곱 과목 시험을 치르면서 예상 외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교과서에서 잠깐 스치듯이 본 문제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에 많이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비슷하므로 그 때에도 겁먹지 말고 평소 쌓은 법지식이나 리얼마인드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논리의 흐름만 어긋나지 않다면 배점을 받는 것이 어렵진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제시도 중앙대 법학관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초시 때보다 체력면에선 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스터디 사람들 4명이 모두 법학관 1층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서 신기했고 그래서인지 더 힘이 났습니다. 상법에서 어음 문제를 풀며 너무 막연해서 시험중간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과락이겠구나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다니 저도 참 당황했었나봅니다.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나면 '끝났다~'라고 소리 지르며 속 시원히 나설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민법을 잘 치르지 못했던 탓일까요, 문을 나서며 웬지 눈물이 나는 듯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과 그 동안 공부했던 시간

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대학과정 1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해 9월, 복학하게 되었고 주위 많은 친구와 선배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날이 되어, 당초 마음 먹은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발표 전에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말기는 기도를 하고 나와 공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를 켜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민언니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보았는데, 세상에, 화면에 저의 이름 세 글자가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함께 연수원에 들어가고 싶었던 언니, 오빠들이 같은 해에 합격하지 못해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컸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선배님과 후배님들을 볼 때 지금도 간절한 응원과 그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VI. 나아가다

시험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천재라고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합격한 연소생들이 있는가 반면, 조금은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하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선택하

고 원하는 방향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달란트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제 안의 가능성을 더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삶을 향한 시각을 더 크고 넓게 본다면 눈 앞에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자신만을 바라보던 이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기도 하는 것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아직 어리고 배울 것 많은 제가 이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면서 느낀 작은 생각입니다.

2010년판 (제10판)

憲法學

(18절판/양장/1,452면/45,000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6-3

TEL : (031) 955-6500 FAX : (031) 955-6525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成樂寅 著

도서출판 法文社